아프리카에 희망을 전달하는 😭 😅 🗪

교육전문기업 에듀박스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아이들도 책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아프리카의 교육에 앞장섭니다.

에듀박스는 밀알복지재단 아프리카 우간다 희망학교에

아동영어책 25,000권을 기부하였습니다.

에듀박스에서 기부한 책은 우간다의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교과서로 활용 할 수 있는

영어 쓰기, 읽기, 듣기, 노래 교재입니다.



[국내사업장]

법인사무국	02-3411-4664
경남지부	055-753-1456
전남지부	061-681-7179
나눔사업본부	070-8708-8178
장애인복지사업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밀알학교	02-3412-1133
밀알연구소	02-3411-4665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밀알그룹홈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룹홈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그룹홈 동행의 집	055-753-1457
굿윌스토어(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윌스토어(밀알도봉점)	02-6910-9191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옥수그룹홈	031-705-3398

아름드리그룹홈 031-414-317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403-0078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온유한주단기보호센터 031-418-9863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 노인복지사업 |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 지역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22-3412-222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3414-3346

이동보육사업

면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사업장]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시에라리온 +232-76-606074 아이티 +509-2-224-1832 에티오피아 +251-911-03324 +972-52-547-1422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263-777-330-752 +86-133-448-7401 +254-732-625-987 필리핀 +63-922-739-7017 +255-754-344-495 +66-86-191-6122









표지설명

밀알복지재단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다. 표지 사진은 초기 시절 정형석 상임대표가 장애인과 상담하고 있는 모습이다.









멜씨	04	하나님의 은혜로 20주년을 맞이하며
특집	06	밀알운동 20년, 수많은 밀알들이 죽어져 여기까지 왔습니
특집	10	약함의 힘이 이루어 낸 기적의 20년 ④
현장이야기	14	헬로友! 다문화!
나연이 담긴 이야기	18	민지가 꿈꾸는 기적
·남세상	21	우리, 함께 한다는 것
당애인 인식개선	25	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
li험이야기	28	특별한 소풍
번인사무군 소신	32	

()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1993년 설립되어 국내의 장애인, 노인, 일자리 등을 위한 43개 산하시설과 2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16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교육지원, 이동진료 등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사회복지단체입니다.

♣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 홍정길 상임대표 • 정형석 이사 •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손봉호 명예이사 • 김귀자, 노상헌, 박완철, 이민우, 장형옥, 정현만, 정형철 감사 • 김재훈 신명철 황호찬 실행위원 • 강영실, 강태인, 강한주, 권중돈, 김귀자, 김명환, 김명희, 김혜경, 류제룡, 박소영, 신민선, 이유진, 임종학, 정태충, 정형석 전문위원 • 김두현, 김미옥, 이천화, 전승만

+ 밀알 2013 07·08 Vol.37

제호 • 밀알Miral(통권37호)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 정형석 주소 135-884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201호(수서동, 한울오피스텔) TEL •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 • 이뭄디지털(T. 02-2285-2656) 인쇄 • 동신인쇄 능력나눔 • 사진_정지영 취재_램프취재단 글_정새롬 카피라이터

33

www.miral.org



산하시설 소식



http://miralorg.tistory.com www.facebook.com/miral4664 www.twitter.com/miral1993





하나님의 은혜로 20주년을 맞이하며

밀알 20주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로도 기적의 발자취를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밀알선교단이 장애인복지와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한 알의 밀알을 심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오늘 큰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변한 밀알공동체를 바라봅니다. 그 숲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편히 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복지기 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복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은 결과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출연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장애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거액의 재산을 남몰래 기부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겨주셨습니다. 남서울은 혜교회는 밀알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은혜와 감동으로 감당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대신에 밀알학교와 밀알아트센터를 건축하여 기부하였습니다. 주일마다 밀알학교 체육관에 의자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 자발적인 불편운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밀알정신을 삶으로 가르치신 지도자가 함께 하여 주셔서 여기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적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손봉호 교수님과 전도와 복지를 사랑 안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복음주의 목회자 홍정길 목사님입니다.

밀알의 발전은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밀알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들과 정성스럽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사랑으로 후원하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





밀알운동 20년, 수 많은 밀알들이 죽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이 20년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죽어서 열매를 맺는 '밀알정신'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내 자식을 나보다 먼저 데려가 달 라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완전한 통합사회를 꿈꾸는 밀알운동은 오늘도 계속된다.



1979

한국밀알 선교단으로 출발

20대 청년 7명이 모여 장애인들을 돕고, 복음을 전 하고자 하는 순수한 취지로 시작된 작은 모임 '밀알 선교단'이 만들어졌다. 사무실도 없이 시작된 작은 모임이 훗날 밀알복지재단의 씨앗이 되었다.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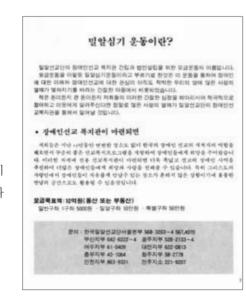
밀알복지재단으로 첫 걸음

밀알심기운동 시작(1991)

본격적인 장애인 복지에 힘쓰고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을 설립하기 로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밀알심기운동을 진행했다. 하나 님 앞에 전 재산을 헌신한 두 분으로 인해 극적으로 모금이 완료되었다.

밀알복지재단 설립(1993)

1993년 7월 15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첫 발을 내딛다. (손봉호 이사장, 정형석 상임이사)





"장애인 학교건립 주민들 방해말라"

서울지번, 말알복지재단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사용기업 인사 합의당하(제권당 - 공사를 성보하지 않다"고 결정 - 제권하는 이어 "한국의 용서당 용 강성구 발명을 시아되면 주민 기계도 명을 안 하면족이 정당한 등의 등원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이부지에 응을 당려로 낸 출입 게 건축하기를 받아 분석을 하고 만큼 '호등학교 부지 존중'을 다 금지 및 공사업에 조지 기부분인 있는 만큼 자체주인들은 공사를 로 주민들이 공사를 함께한 것은 마음 방이들이 "이루트 주민들은 방문한 콘티가 많다"고 밝혔다.

도막적으로 비난원이 비용되다"고 의 서울 강남구 일본등 일대에 됨 서당에이루고인 필입하고 건축 중 사용 시작했으나, 인근 이유트 주 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다 기차본인

1997

밀알학교 개교

남서울교회가 특수학교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뒤 운영을 밀알복지재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주민 들의 반대로 건축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허가가 이 뤄진 뒤에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주민들 로 인해 곤경을 겪었다. 기나긴 싸움에 지쳐갈 무 렵, 북미한국유학생수련회(KOSTA) 출신의 김주 영 변호사가 이 상황을 안타까워해 돕기 시작, 공 사방해중지가처분소송을 승소하게 됨으로 건립의 큰 장애물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 판결은 님비현 상을 비판하며 장애인 교육권에 손을 들어줘 많 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국내 장애인복지의 전환 점이 되었다.

2003

국내복지 사업분야 확장

밀알복지재단 최초 지부 설립(1998)

밀알복지재단 전남지부를 여수에, 경남지부를 진주에 설립했다.

아동복지 시작(1998~)

여천제일어린이집. 부암어린이집. 목련어린이집 등을 수탁운영해 아동복지 사업을 시작했다.

노인복지 시작(2000~)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목련데이케어센터 등을 수탁운영해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했다.





2004

밀알콘서트 시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자는 의도로 밀알통합음악회를 준비했다. 고민 끝에 '함께하면 통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제1회 밀알콘서트'를 개최했다. 이후 매년 개최,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해외지원사업 시작(2004)

해변 갯벌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작은 나무집을 지어 살고 있는 필리핀의 소수민족 바자오족, 급격 히 난민이 된 그들에게 첫 지원을 시작하면서 해외 에까지 나눔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9

장애인복지분야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

2009년 삼일미래재단에서 복지기관들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제정한 삼일투명경영대상 장애인분 야 대상을 수상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공정한 회계 검증을 위해 외부 감사제를 일 찌감치 도입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온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네팔 밀알학교 지원시작

네팔 특수학교인 밀알학교에 지원을 시작했다. 해 외에서도 장애인 지원사업의 첫 받을 내딛었다.



2011

국제 NGO로 발돋움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에티오피아 등에서 국제협력개발사업을 시작했고, 희망TV SBS에 참여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제협력개발사업 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굿윌스토어 개관

'자선이 아닌 기회를' 철학으로 삼는 장애인자립형 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를 개관했다. 송파구 마천 동에 처음으로 문을 연 굿윌스토어는 현재 월 매출 액 1억 규모에 5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 장으로 발전했다.

2013

밀알복지재단 20주년

올해로 20번째 생일을 맞은 밀알복지재단은 국내 2개 지부와 43개 산하시설, 해외 16개국 18개 사업장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다. 소외된 이웃들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밀알을 심을 것이다.







글 _ 옹모딤 소ㅠ

약함의 힘이 이루어 낸 기적의 20년

1화 약한자를 위한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화 이 아이들에게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3화 밀알사업 1 장애인복지 1판

4화_ 밀알사업 2 장애인복지 2편

5화 밀알사업 3 노인복지 및 지역복지사업

6화_ 밀알사업 4 해외사업



자에이토토이하고 하새 드 면이 되고 기대의 아이스어지기에 바게 오고 이다

장애아동들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작은 치료 큰 기적, 저소득장애이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에게 기능의 회복이나 발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놓는 다. 스스로 숟가락을 들지 못했던 장애아동이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밀알복지재단은 여기에 주목했다. 수술이나 치료나 약물이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지만 작은 도움으로 기능과 장애정도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면 그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2005년 기업(SK)의 후원을 받아 시 작한 '장애아동 새생명릴레이'사업 역시 이 같은 정신에서 출발했다. 새생명릴레이사 업은 장애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족과 격리되어 살아 가는 시설 장애아동들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이었다. 밀알은 이들에게 수술과 치료의 기회를 주어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게 지원했다.

이 사업을 통하여 50명의 아동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 주로 고관절 탈구나 아킬레스 건 연장술과 같은, 장애요인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술이었으나, 사시교정수술, 이비인후과 및 치과 수술, 안면성형, 위관 삽입술 등의 수술도 실시했다.

이후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까지 수혜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저소득 층 장애아동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2013년 현재는 장애아동 결연지원, 수술비지원, 신장장애인 이식수술비지원, 안면장애인 무료성형수술지원, 방문물리 치료지원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



의료비지원으로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아동



방문물리치료

"장애아동에게 기능의 회복이나 발전은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삶 전체를 바꾸어놓는다."

선생님이 오시는 날, 우리 아이는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특히 장애가 너무 심해 특수학교조차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느라 문밖 구경도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인 부모들, 어렵다고 이야기할 통로조차 없는 그들을 찾아가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업이 바로 방문물리 치료이다.

부모들은 중증의 아이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밀알의 방문 물리치료사는 이런 아이들을 찾아가 몸의 변형을 방지하고 자가 호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거나 고개를 가눌 수 있도록 물리치료를 해준다. 치료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 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벌써부터 문밖을 바라본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선생님에게 아이는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한다. 아이를 바라보는 가족들도 아이 못지않은 기쁨을 맛보고 위로를 얻는다.

아무도 찾아와주지 않는 집을 찾아가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장애아에게 관심을 가지며, 아무도 만져주려 하지 않는 그들의 비틀린 몸을 만지는 것. 방문물리치료사들은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토요학교 야외수업 모습



토요학교 개강식

"아이들은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 벌써부터 문밖을 바라본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연습 모습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에게 마을이 되고 싶었던 밀알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마음이 되어 함께 살아가고자 의료지원과 더불어 교육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주5일 수업제로 인해 토요일에 학교나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취약 계층 장애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토요학교는 장애아동 과 그 가족 모두가 환영하는 사업이다. 현재 장애아동 및 청소년 90여명이 토요일에 신나는 수업을 받고 있다.

또한 '특수'라는 명목이 붙어 예체능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장애아동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밀알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국내 최초 첼로로 구성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를 만들었다. 8세부터 19세의 장애아동으로 구성된 28명의 아이들과 부모님은 첼로를 연습하면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음악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던 발달장애아동들은 '음악을 배우며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꿈을 갖게 되었다.

글 _ 홍보팀 김미란



지역과 인종을 하나로 묶는 축제



다문화 축제에 참여한 분들이 대형화채를 나눠 마시고 있다.

'헬로友! 다문화!'

지난 6월 8일, 흥겨운 축제의 장이 열렸다. 강남구 일원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마당에서 진행된 '헬로友! 다문화!' 축제가 바로 그것. 밀 알복지재단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관 하에 열린 이 행사는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고 그들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 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태국 전통춤 커뮤니티 '람타이'와 다국적 노래단 '몽땅'의 공연으로 다문화 축제가 개막되었다. 이 공연만으로도 이미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한껏 흥분이 고조되었고, 마치 그 순간만큼은 이 곳이 다문화 공동체가 된 듯한 착각이들 정도였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흥겨운 듯 하나 둘 모여들기시작했다. 공연에 이어 '다문화 대형 화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여러 가지 과일이 섞여도 각자의 고유한 맛이 유지되며함께 어우러지는 화채처럼 인종과 국적에 관계 없이 화합하자는마음을 담아 맛있는 화채가 완성되었다.

결혼이민자가 직접 운영하는 전시Zone 〈지구촌 한마당〉에서는 중국・베트남・일본・몽골・러시아・필리핀 등 6개 국가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흥미를 자아냈다. 그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오락관, 세계 전통가옥 만들기, 한국 전통 탈 만들기, 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네일아트 부스 등으로 구성된 체험Zone〈화합한마당〉이 함께 진행되어 지역주민 모두가 다문화를 몸소 체험하였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생소한 전시와 체험 기회여서인지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다문화 음식체험 먹거리Zone〈多먹거리 한마당〉과 온가족 품앗이 나눔장터, 포옹 캠페인 등 온 가족을 위한 참여Zone〈나눔 한마당〉도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날 행사장에는 특별히 이탈리아 국적의 강남구 홍보대사 크리스티나씨가 참석했고,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지역 내 유학생과 시민 모두가 어우러져 뜻 깊은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INTERVIEW

-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희 사회복지사

일말 어떤 계기로 이번 축제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송희_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후 2년간은 강남구건강가정지 원센터와 함께 '열린가족축제'에 한 코너로 참여해 왔습니다. '다문화 무지개 학교', '다문화 알리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 해 왔었죠. 금년은 저희 센 터가 개소한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강남구 다문화가족과 지 역주민 분들에게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보여드리 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 이만큼 가까이 도래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알_정기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신가요? 송희_ 금번 다문화가족축제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기회가 된다면 정기적인 개최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말을_이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송희_ 다문화가족이 직접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과 강남구 지역주민에게 다문 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말 이번 행사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떠셨나요? 송희_ 금번 다문화가족축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몽골,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 12분이 직접 6개 부스를 운영하고, 국가 별 전통 문화와 미션을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분들께서 자신의 출신 국가 문화를 소개하다보니 비록 한국어는 부족했지만, 더욱 특색있는 다문화가족축제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도 전통의 상을 착용하셔서 이색적인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스 운영과 더불어 다국적 노래단 '몽땅'과 태국 전통춤 커뮤

니티 '람타이'의 축하공연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선사하였고, 일본과 이란, 콩고의 전통 먹을거리와 '다문화 대형 화채' 300인분 나눔으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남구 지역주민이 다문화를 흠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말 행사를 마치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송희 행사 당일에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국적 노래단 '몽땅'의 아름다운 노래를 잘 듣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음향의 경우,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리허설을 해도 행사에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을 많이 졸이며 준비하였는데 이번 축제에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 음식 업체를 직접 섭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먹어보지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른 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은 뿌듯했지만 배는 고프더라구요^^



체험해보는 주민들



다문화 축제의 필리핀 부스

밀알_ 준비과정에서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 소드가 있으신가요?

송희_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행사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문화 대형 화채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화채 만들기는 물론이고, 높이 1m, 지름 1m의 대형 얼음 그릇을 주문했던, 저희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벤트가 기억에 남습니다. 더 맛있는 화채를 만들기 위해 직접 다른 직원 분들과 전날 리허설까지 해 보며 다 함께 이리저리 머리를 맞대어가장 맛있는 비율과 예쁜 그림을 위해 노력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당일에 맛있고 예쁜 과일 화채가 완성 되어서 지역주민 분들이 시원한 화채를 나누어 드실 수 있었답니다.

및말_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송희_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남구 거주 다문화가족 을 위한 맞춤형 가족복지를 지원하는 센터로, 한국생활의 안정 적인 조기정착과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체험 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사회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 통번역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를 위한 최적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多먹거리 한마당

밀알_ 다문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비교적 익숙해진 개념이긴 하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희_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웃들 중에 다문화가족이 있는지 한번 돌아 보세요. 아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다문화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 해보시면 좋은 친구와 이웃을 만나게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닌, 내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도, 걱정하거나 동 정해야 할 사람도 아닌, 그저 내 친구와 내 이웃이라고 받아 들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행복한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_ 홍보팀 조규성 **사진** _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 우리가 한번만 더 돌아본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나눈다면, 함께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지가 꿈꾸는 기적

"안돼 민지야!! 안돼!!"

어머니는 상담을 하면서도 몇 번을 집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를 잡으러 가십니다. 집안으로 아이를 데려왔지만, 민지(10세, 가명)는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돌발 행동을 일삼아서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항상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얌전히 앉 아 있다 싶더니, 곧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집 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동의 난폭한 행동과 비명으로 집안 환경이 어두워 음침 한 분위기까지 납니다.

민지는 중증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입니다. 몸은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모든 신변처리가 어렵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여 어머니가 24 시간 민지를 보호하며 지내야 합니다. 길거리를 활보하다가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고, 잠깐 눈을 떼면 무엇인가를 집어서 삼켜 버리기 일쑤입니다.

민지 주변에는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민지를 무서워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머리를 잡아 당기고 꼬집고 물어뜯어서 동네 아이들은 민지를 무서워 합니다. 민지는 집에서도 버릇처럼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민지로 인해 많이 다치기도 하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민지가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 염려를 넘어 무서워 하기까지 하십니다.

민지에게는 재활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폐성장애는 질병이 아니고 불치병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장애입니다.

민지 역시 재활과 훈련을 통해 어릴적 보다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재활을 통해서 아동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민지는 앞으로

MIRAL 2013 07-08 사연이 담긴 이야기

언어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엄마"라는 말조차도 한 번도 해본적이 없지만, 병원에서는 아동이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당장 언어치료를 시작해야한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유일하게 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시며 100만원의 수입만을 벌어오십니다. 수입이 적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액수입니다. 민지가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을 간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병원에 가게되면 그병원비는 곧 빚으로 돌아오게 되어 쌓인 빚이 어느덧 1,800만원에 이릅니다. 지금은이자를 내기에도 벽찰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부분적으로 시각장애가 있으시고, 갈수록 시각장애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일을 못하게 되면 적은 수입마저 끊어질까 염려가 됩니다.

민지네 가정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자폐성발달장애를 가지게 된 이후에 가정이 많이 어려워 졌습니다. 집도 18평 남짓한 조부모님 댁에 신세를 지게 되어 늘 죄송한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밀알복지재단에서는 민지 가정에 도움을 줄 분들을 찾습니다. 이 가정이 오랫동안 힙겹게 지고 왔던 짐을 나누어 지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위로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으로 민지가 언어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돕고, 사회성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나눔으로 민지네 가정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지가 '엄마'라고 말하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글 _ 국내사업팀 김래홍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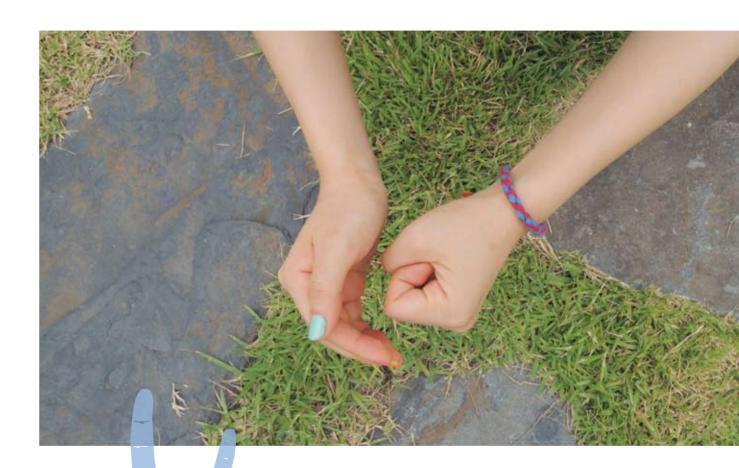


| <mark>후원 신청 문의 |</mark> 1899-4774 | <mark>후원 계좌 |</mark> 우리은행 322-058119-13-001 신한은행 140-006-896511 예금주 : **(*)** 밀알복지재단



정새롬 후원자가 직접 경험한 "밀알의 나눔세상 돋보기"

정새롬 카피라이터가 전하는 나눔이야기 공간입니다. 밀알복지재단에 후원중인 정카피라이터가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나눔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한다는 것.

오늘은 동화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옛날 어느 별에 손이 초승달처럼 생긴 오목나라 사람들과 손이 동그랗게 생긴 볼록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손 모양 하나만 달랐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늘 서로를 헐뜯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양쪽 나라 사람들 모두가 자주 놀러 오는 높은 탑 위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볼록나라 아이 한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같은 볼록 손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자꾸 미끄러지기만 했습니다. 그



수화교실 정예 멤버들의 개성만점 단체 사진

때 오목나라 아이 한 명이 손을 내밉니다. 둘의 손은 원래부터 한 쌍이었던 것처럼 꼭 맞았고 그 래서 볼록나라 아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다르다고 생각하니 달라진 것이죠. 사실 이야기 속 사람들처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먹는 순간 삶에 사르르 녹이들어 새로운 맛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참 맛있는 것입니다. 오목과 볼록, 장애와 비장애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되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께만 살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앞에 옹기종기 모여 누구보다 멋진 포즈를 완성한 저와 친구들의 사진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 중 누구는 멋진 달리기 선수이고, 누구는 아름다운 무용수입니다. 또 어떤 이는 범죄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며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 그 연결 고리는 바로 '손'입니다.

수화를 배우기 전 나는 그들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수화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 우리는 '함께'가 되었습니다. 공통분모가 생긴다는 것은 단 일부분일지라도 세상을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건청인과 농인(雙人)이 아닌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묶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처음 수회를 배울 때는 사실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 니까요. 수화 교실은 매주 1회 2시간씩이었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선생님의 손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모두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의 초급반이 지나고 폭풍 성장의 중급반이 시작되면서 즐거운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농인 선생님과 함께 하는 중급반의 수업 방식은 수회를 대하는 마음 자세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서든 단어들을 알아야 했습니다. 평소 이야기 하고 농담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날 쓴 일기를 수화로 번역해 보기도하고, 지인에게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수화로 미리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실력은 늘어갔고 농인 친구들과도 즐겁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만 기억한다면 그것만큼 쉬운 일도 없습니다.

만나고, 생각하고, 놀이라.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다면 먼저 두 가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눔을 향한 소리와의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두 가지가 준비 되었다면 이제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나눔을 시작할 때 빈 종이에 사람을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과 머리와 팔 다리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차례대로 적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없이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부터 나눔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나고 생각했으면 이제 신나게 노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무언가를 베푼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로 할 수 있는 일에 마라톤 동반완주를 적어 두었습니다. 이 생각이 저와 '해피래그'의 첫만남이었습니다.

'해피래그'는 한국시각장애인마라톤협회 'VMK'의 결연 동호회로 동반주 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달리는 것이 좋아 시작했던 취미가 함께 달려 더욱 행복한 '나눔'의 장이 된 것이죠. 사진 속 즐거운 미소들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한바탕 신나게 놀아보자라고 말입니다. 입담 좋고 실력 좋은 시각장애 마라토너들과 함께 달리는 일, 슬슬 부러운생각이 드신다면 살짝 구경 오셔도 좋습니다. 마라톤을 몰라도 누구나 함께 달릴 수 있는 곳이니까요.

22 • MIRAL WELFARE FOUNDATION

우리, 함께 한다는 것.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생각들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방법은 많고 당신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은 제 경험에 국한된 것이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는 이 것보다 더 신나는 나눔의 놀 거리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우리'는 '함께'일 때 더욱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장아람 수화교실_ 02)3147-1515~6 (신촌 CGV 건물)



함께 달려 더욱 행복한 해피레그의 대표 미남미녀들

정새롬 카피라이터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야기꾼입니다. 현재 이랜드 리테일의 웹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나눔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있는 '꾼'이 되고자 합니다.



● ● 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

오마이뉴스와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는 '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은 장애인을 자녀로 둔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해보는 캠페인입니다.



"몸이 작다고 뇌도 작은 건 아니에요"

흔히 '장애이'라고 하면 '불쌍하다' '안 됐다' 등의 말이 따라붙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행복하다' '네 덕분에 산다'며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사회의 편견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으로 사는 그들. 〈오마이뉴스〉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 단(www.miral.org)이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하루하루가 급해요. 제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인이를 다그치게 돼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서 뭐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공부 잘해서 공무원이 되라고 했어요. 안정된 직장을 구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먼저 자리를 뜨는 예인이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까지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엄마. 예인이의 빨간색 전동스쿠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엄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예인이 걱정을 놓지 못할 듯하다.

"태어날 땐 몰랐지요. 그런데 두 살 무렵 막 걸음마를 배울 때인데 예인이가 '어머니, 다리가 아파요'라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니까 예인이도 제게 '어머니 어머니' 그랬거든요. 아기가 '어머니, 다리가 아파요' 그러는데 가슴이 뚝 떨어지면서 뭐라 설명할 수 없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즉시 병원에 데려갔지만 엄마는 예인이의 진단 결과를 듣지 못했다. 의사가 "병(연골무형성증)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 오열과 함께 정신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열네 살 예인이의 키는 120cm, 마흔다섯 엄마는 100cm, 남다르게 키가 작은 두 모녀는 희소질환인 연골무형성증을 앓고 있다.

• 연골무형성증이란?

연골무형성증은 10만 명당 2명꼴로 발생하는 희소 질환이며, 비정상적으로 저신장을 일으키는 유전적 장애다. 부모 중 한사람이 연골무형성증일 경우 태어날 아기가연골무형성증을 가질 확률은 50% 가량 된다. 평균신장은 남성의 경우 131cm, 여성의 경우는 124cm. 연골무형성증은 골성장의 장애로 유전자의 돌연변이 때문에 발

생하는데 약 90% 이상이 새로 발생하는 돌연변이기 때문에 가족력은 없다.



예인이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흐르는 엄마

엄마에게 받은 상처... 딸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지독한 멸시와 천대. 남도 아닌 낳아준 엄마로부터 받은 정신적 학대는 자신감을 빼앗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했다. 그런데 딸마저 자신과 같은 운명이라니... 친엄마도 그렇게 밀어내고 부인했는데 남편이라고 무엇이 다를까. 결국에는 자신도, 딸도, 남편에게 집만 되다가 버림받게 되겠지 하는 불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키 크고 잘생긴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저 같은 아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늘 창피하게 생각했지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당신 사주에는 자식이 셋뿐이라고... 그런데 구석에 병든 것이 하나조그맣게 있다는 둥... 엄마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너무많이 했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우등생을 놓치지 않았는데 엄마에겐 그런 것도 소용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를 깊은 멍울로 가지고 있는 선혜씨. 그 상처는 마흔 중반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물지 않고 기억을 되새길 때마다 서러운 눈물이 돼 흘러내린다. 하지만 예인이에게 만큼

은 그런 슬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고 예쁜 딸로 키워내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가 슬플까봐 '왕따' 시실도 말하지 않은 딸

엄마와 토닥거리며 말싸움을 하는 모습이나 심술 난 척 뽀로 통한 모습이나, 때로는 엄마를 이겨보려고 억지를 부리고 톡톡 말대꾸하는 모습까지 제대로 사춘기 티를 내고 있는 중3 예인 이. 하지만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깊은 눈 속 어딘가 에 슬픔을 감추고 있음이 느껴진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때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가 슬플까봐... 나 때문에 가슴 아플까봐... 말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낳았다는 것 때문에 엄청 미안해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도다 아니까.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말하기 힘든 게 아니라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약한 몸과 작은 키 때문에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었던 예인이는 언제나 멀리서 친구들의 놀이를 부러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많이 울고 많이 슬펐지만 엄마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예인이. 하지만 어린 마음에 쌓여가던 상처는 마침 내 병이 되고 말았다.



예인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심리검사에서 제 심리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심 리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힐끔 거리는 시선, 두렵습니다"

작고 여린 딸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 남부럽지 않게 잘해준 것도, 넉넉하게 남겨줄 것도 없기에 엄마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예인이는 되레 어른스럽게 다가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아이다. 하지만 그런 예인이에게도 비장애인들의 시선은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인터뷰에 응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는 예인이. 인터뷰를 통해 비장애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그동안 그 어린 가슴에 맺혀 있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다.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몸이 작다고 해서 뇌가 작은 건 아니거 든요. 제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넘긴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 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든 사회든 장애가 있어 못할 거라고 제외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힐끔거리는 시선이 어딜 가나 제일 두렵고 싫어요."

10대답게 고민이 많다는 예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이것저 것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단다. 글도 쓰고 싶고 네일아트도 배워보고 싶고, 중단했던 피아노도 다시 하고 싶다는 욕심 많은 아이. 하지만 욕심을 내기 전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책속에서 차분히 자신의 미래를 찾고 싶다는 당찬 소녀. 비록 몸은 작지만 꿈만은 세상에서 제일 큰 소녀가 아닐 수 없다.

작은 예인이의 큰 꿈이 이뤄지길 기원한다.

글 _ 김혜원 기자 **사진** _ 추연만 사진작가



●● 장애인이 되어 떠나는 여행기 '램프의 조금 특별한 소풍 – season2'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되어 떠나보는 소풍

비장애인들이 흔히 가는 그곳, 친구들을 만나면 가는 그곳,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그곳,

그러나 장애인들은 가기 두려운 곳일 수도 있는 곳들로 갑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갔을 때 꼭 필요한 지도를 그리려 합니다.



제이드헤어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환영하는 의미의 하트를 그리고 있다.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2. 张丹彻堤, 宝宝。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직접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없는 매장, 편견 없이 장애인들을 친절하게 맞아줄 착한 가게, 장애인들이 눈치 안보며 쉴만한 장소 등을 찾아 지도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그들에게 안심하고 찾아갈만한 곳들을 미리 지도로 만든다면 그들의 소풍은 조금이나마 즐거워질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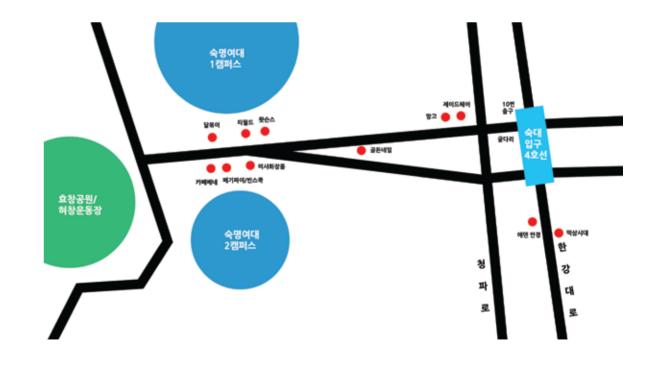
지난 번 가로수길에 찾아가 휠체어를 밀며 첫번째 지도 그리기 작업을 해보니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의 지도를 만든다면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도를 다 그려놓고 보니 장애인들이 갈만한 곳은 너무 적고, 사람은 너무 많아 방해가 될까 두렵고, 도로사정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너무 좁고 턱이 많아 위험하고, 대형 의류 매장 말고는 들어갈 수 있는 곳 조차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장애인들이 굳이 그런 힘든 장소로 여가시간을 보내러 가게 될까? 아마도 가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지도가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그 질문에도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장애인들이 여기저기 저마다자신의 동네에 살고 있고 어느 장소를 소개해도 누군가에게는 먼 곳의 이야기일 뿐일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는 가리지 않고 지도를 만들어야 했다. 어디든지 가리지 말고 차근차근 조금씩 지도를 만들어 서울 전부를 뒤덮는 지도를 만들자.다만 지하철이 다니는 곳이라야 편하니까 지하철역에서 골라

보자. 그리고 눈을 감고 무작위로 한 곳을 쿡 찔러 정한 곳. 숙대입구역이었다.

숙대입구 역 근처에 뭐가 있더라? 그래도 대학가인데 뭐라도 있겠지. 무작정 길을 나섰다. 마침 올들어 가장 더운, 폭염주의 보가 내린 날이었다.

숙대입구역 주변 한강대로변은 대형음식점 몇 개와 옷가게 등이 늘어서 있다. 평지이지만 생각보다 사람이 붐빌 때가 있어서 조금의 주의를 요한다. 그다지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니지만 만약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를 맞춰야 한다면 한 번쯤 가봐도 좋을 것 같다. 휠체어로 매장에 들어서기도 쉽고 문턱도 낮은 '에덴 안경 콘텍트'가 있기 때문이다. 친절한 사장님은 장애인들이 찾아와도 언제든 불편하지 않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큰길을 건너 맞은 편에 '떡삼시대'라는 음식점도 턱이 없어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별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그렇지만 한강대로변에는 장애인들이 들어갈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체험이야기



숙대 거리

숙대입구역 10번출구(엘리베이터 있음)로 나와 숙명여대 방면으로 굴다리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면 길게 오르막이 시작된다. 휠체어로 오르막을 오르기는 여간 어려운게 아니지만 휠체어를 밀어줄 친구와 함께라거나 전동휠체어로 이동할 경우,혹은 시각장애등 오르막을 오르기에 어려움이 덜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슬슬 올라갈만한 길이다. 꽤나 갈만한 곳이 많은 길이기 때문이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편으로 '제이드헤어'가 보인다. 숙대 앞에서 오랜 시간 영업을 해온 곳 답게 친절한 직원들이 맞이해준다. 직원들은 장애인들이 온다해도 친절하게 맞이줄 수 있다며 약속을 해주었다. 휠체어가 거추장스러워서, 혹은 장애가 있는데 미용실에 가기 두려웠던 분들은 다음부터는 이곳으로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제이드헤어' 바로 옆으로는 간판



제이드헤어

이 없는 옷가게가 하나 있다. '망고'라는 이름의 이 옷가게는 턱이 없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 '망고'를 지나면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된다. 하지만 오르막만 아니라면 장애인 거리라고 해도 좋을만큼 문턱없는 가게도 많고 인도의 경사로 처리도 잘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도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다.



식당과 카페들

이 거리에는 먹을거리와 카페, 은행, 휴대전화 가게, 네일샵 등 여러 종류의 가게가 턱을 없애고 영업중이었다. 굳이 가게 로 들어가지 않아도 길에서 직접 주문하고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분식집들도 많은데 특히 '달볶이'가 유명하다. 갈만한 카페도 많은데 페기파이, 빈스쿡 등 몇군데 중에 고르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다.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기도 좋아보였다. '미샤'나 '왓슨스' 같은 매장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 다만 매장 안을 모두 자유롭게 돌아다닐만큼 큰 규모는 아니라 점원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 휴대전화 매장도 몇 곳 있다. 좀더 시간이 된다면 '골든 네일'에 들러 예쁜 매니큐어를 발라보는 것도 좋겠다.

힘을 좀 더 내서 오르막의 끝까지 갈 수 있다면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시원한 그늘에서 산들바람을 맞으며 쉬기 좋은 효창

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여유로운 분위기에 입장도 자유로워 부 담 없이 앉아서 쉬며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숙명여대 제2 캠퍼스에 위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좋다. 대부분의 점포들은 길가에 있고 따로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 총평

오르막만 아니라면 훨씬 좋았을 것. 여러 종류의 가게들이 문턱을 없애고 영업중이고, 보도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가 잘 마련된 편. 특별한 명소는 없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충분함.

记성 ★★★★ 편의성 ★★ 재미 ★★ゥ

사진 · 글 _ 정지영 아동문학가





효창공원

법인사무국 소식



아이티 장애인지원사업 시작

밀알복지재단의 아이티 포르토프랭스근교 장애인 시설 및 초등학교 급식 및 비품지원사업이 5월부 터 시작되었다.

본 지원을 통해 밀알복지재단은 아이티의 열악한 장애인 및 빈곤아동상황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딜라이트 보청기와 사회공헌 제휴 협약

5월 3일(금), 딜라이트보청기와 밀알복지재단의 사회공헌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달라이트보청기는 저소득소외계층에게 무료청력 검사차량을 통한 청력검사지원은 물론 자사 보청 기를 후원하는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 기로 하였다.



야구스타 양준혁 회색리본 캠페인 참여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회색리본달기 범국민운동'에 양준혁 전 프로야구 선수가 39번째 스타로 참여했다.



밀알복지재단-SK건설 걷기대회 개최

5월 11일(토) 밀알복지재단은 SK건설과 함께 가정 의 달을 맞이하여 1, 2, 3세대 간 통합의 문화 형성 을 위한 SK건설 희망메이커와 함께하는 한가족 걷 기대회 '희망! 한걸음, 행복! 두걸음'을 주최하였다.



달샤벳과 포맨,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 위촉

밀알복지재단은 5월 2일(목), "포맨"과 "달샤벳"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장애아동인식 개선 캠페인과 재능기부 등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 라이베리아 후원금 전달

동아쏘시오그룹과 밀알복지재단은 5월 15일(수) 아 프리카 라이베리아 주민 후원 기념식을 가졌다. 이 날 동아쏘시오그룹은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 달했다.



신한은행과 경영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밀알복지재단은 신한은행과 5월 7일(화), 경영컨설 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체결 이후 신한 은행은 밀알복지재단 내 산하시설에 컨설팅을 제 공하게 된다.



2013년 상반기 희망TV SBS 진행

5월 10~11일 진행된 희망TV SBS에 밀알복지재단이 참여했다. 라이베리아와 우간다 빈곤아동 사연등이 방영되었고,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책을 기부받아 책타워를 쌓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남제일성형외과와 사회공헌 제휴 협약

6월 18일(화), 밀알복지재단과 강남제일성형외과는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안면장애인들에게 수술지 워을 하기로 했다.



브라운성형외과와 사회공헌 제휴 협약

6월 4일(화),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브라운성형외 과가 밀알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소외계 층 안면장애인을 위한 의료지원과 함께 정기후원 을 약속했다.

산하시설 소식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福을 부르는 孝콘서트'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SH공시와 함께 5월 29일(수) 임대아파트 어르신을 대상으로 효도한마당 福을 부 르는 孝콘서트를 열었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이섬 여행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5월 16일(목) 다문화 가족과 함께 춘천에 있는 남이섬에 다녀왔다.



해마을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적응활동 JOYFUL

해마을주간보호센터에서는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높이 기 위한 활동으로 6월 7일(금) 신당역 곤충생태체험학 교에 다녀왔다.



2013 강남구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주관으로 2013년 6월 11일(화)*2013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세텍(SETEC) 제2전시장에서 개 최하였다.



장애인식개선사업 참가

밀알보호작업장, 밀알베이커리, 우리플러스작업장은 2013년 5월 24일(금) 강남구청 주최로 열린 장애인식개 선사업 "다른만남 같은생각"에 참여하였다.



한우리주간보호시설 건강검진

2013년 6월 12일(수) 한우리주간보호시설에서는 종합건 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미국 굿윌스토어 연수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한국 굿윌 직원들의 미국 연수가 있었다.



굿윌스토어 도봉점 상반기 야유회 실시

굿윌스토어 도봉점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5월 10일(금) 서울대공원으로 아유회를 떠났다.



「2013 드림아카데미 꿈키움 장학금」 전달식 진행

5월 25일(토) 10시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 KRA 선릉지 사의 후원으로 2013 드림이카데미 꿈키움 장학금 지원 사업,전달식이 진행되었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중·고입 검정고시합격증서 수여 식 참석

5월14일(화) 중·고입 검정고시합격증서 수여식에 검 정고시반 합격 회원 14명(중입6명, 고입8명)이 참여하 (Br.)



도봉시니어클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상] 시상

서울도봉시니어클럽은 2013년 5월 28일 공군회관에 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2012년 노인일자리 종합평가대회]에서 원장상을 수상 하였다.



건설공제조합 어항지원 및 자원봉사 실시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는 5월 28일 건설공제조합 임직 원들에게 정서지원사업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기부받 고 9명의 직원들이 독거어르신댁을 방문했다.

산하시설 소식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2013년 봄나들이

2013년 4월 26일 봄을 맞이하여 데이케어센터 이용 어르신을 모시고 청와대를 다녀왔다.



밀알 주간 · 단기보호센터 영화 관람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에서는 특별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사회통합의 기회 를 제공하고자 5월 29일 강동 CGV를 방문하여 영화 를 관람하였다.



밀알학교 초등 고학년 생활훈련

밀알학교 초등 4, 5, 6학년 학생들이 6월 13일 경기도 이 천 돼지박물관을 다녀왔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전통찻집 '별마루' 오픈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5월 31일(금) 어르 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통찻집 '별마루' 오픈식이 진행되었다.



당애인 인권교육 실시

성남복합사업장은 5월 15일, 근로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지적장애인 볼링대회 참기

안산밀알보호작업장에서는 5월 31일 제2회 전국지적장 애인복링대회에 참가하였다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가족운동회

5월 25일,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운동회를 통해 유대 감을 형성했다.



민간지원봉사단 '행동하는양심' 업무협약

5월 15일, 온유한주단기센터는 '행동하는양심'과 협약을 맺고 향후, 1년간 외부활동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제2회 희망서울 구매엑스포 참가

청밀은 6월 4.5일 제2회 희망서울 구매엑스포에 희망식 품기업으로 참가하였다.



면일 어린이집 '단오제'

음력 5월 5일은 단오날로 6월 13일(목) 면일 어린이집에 서 '단오제'가 열렸다.



목련어린이집 부모참여수업 진행

5월 25일(토)에 만4세, 만5세 유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부암어린이집 봄 소풍

5월 9일, 부암어린이집 영·유아 친구들이 '딸기농장'으로 소풍을 다녀왔다.



중림어린이집 통합반 견학

6월7일 중림 통합반 이동들이 지역사회연계로 경복궁 어린이박물관에 견학을 가게 되었다.



청마을어린이집 서울숲 방문

서울숲에 방문하여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3년 5월~6월

밀알복지재단 결산보고

수입 총계 2,881,144,155 100.0% 기타보조금 8.357.600 0.3% 소계 1,613,620,034 56.0%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1,143,639,245 70.9% · 지정후원금 469,980,789 29.1% 기타수입 535,080 0.0% 재산수입 3,436,500 0.1% 잡수입 1.395.435 0.0% 전월시업준비금 1,253,799,506 43.5%





			단위:원
지출			
총계		2,881,144,155	100.0%
법인사무국 운영관리비	소계	212,971,089	7.4%
	· 인건비	126,270,165	59.3%
	· 업무추진비	15,477,910	7.3%
	· 운영비(재산세 등)	71,223,014	33.4%
국내사업	소계	512,488,073	17.8%
	· 장애인복지사업	474,959,293	187.7%
	· 노인복지사업	9,738,780	3.8%
	· 지역복지사업	27,790,000	11.0%
	· 이동복지사업	-	0.0%
	· 기타사업(문화, 일자리 등)	-	0.0%
	소계	355,329,983	12.3%
	· 이동결연사업	110,955,714	31.2%
해외사업	· 이동지원사업	87,739,953	24.7%
	· 장애인지원사업	70,449,982	19.8%
	· 보건의료사업	12,957,501	3.6%
	· 분야별특별사업	46,474,340	13.1%
	· 국제협력사업	14,125,600	4.0%
	· 해외사업국운영지원	12,626,893	3.6%
	소계	258,583,726	9.0%
자원개발사업	· 미디어개발사업	124,376,950	48.1%
	· 회원서비스사업	78,621,475	30.4%
	· 온라인사업	25,234,760	9.8%
	· CSR협력사업	25,631,047	9.9%
	· 오프라인/교회협력사업	4,719,494	1.8%
홍보사업		47,529,440	1.6%
경영기획사업		9,550,210	0.3%
재산조성비		285,795,168	9.9%
상환금		204,499,314	7.1%
잡지출		1,100,140	0.0%
차월사업준비금		993,297,012	34.5%